

Hong Soun

홍순명

tion's
sts Support Project

HOBAN
호반문화재단

홍순명 Hong Soun

Artist Hong Soun has been working on unique, experimental work that transitions from painting to three-dimensional, installation, screenprint, and media art. His distinctive style known as "Sidescape" has been painted for the past 20 years to deepen and expand on current events, history, and the interaction between nature and humanity under the tenet of "The Part and The Whole". This is the central idea of Hong's aesthetics, which challenges the definition, scope, and limits of universal beauty by rever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er and the peripheral by viewing things from the periphery rather than the center, as in "Sidescape".

Where is the limit of the truth in what we are currently witnessing? Through experimental way of employing images of domestic and global socio-political events and issues in the field, Hong Soun investigates the ambiguity of truth that can still be repeated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He dismantles fixed and static antagonistic relationships such as dominance and subjection, the outside and the inside, beauty and ugliness, truth and lies, and continuously probes the context and viewpoint in search of the solution.

In his painting, a vast landscape (the whole) that suggests social issue or historical disasters is unfolded by combining and arranging dozens or hundreds of canvases of abstract and independent images (the parts), upe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and redefining perception. Even the scene of a horrible natural disaster or man-made disaster can occasionally show the conflict between people's attempts to look artistically at "a specific point" and their subsequent realization of the substantial authenticity of what they are seeing.

The same context also applies to three-dimensional art. The line dividing sense from nonsense, the reality of truth, demonstrates how a new layer might eventually be formed from a difference in perception and viewpoint through an item covered in an original "wrapping" method using transparent plastic wrap. The more transparent vinyl is overlaid on an object, the opaquer the material gets, making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the part and the whole. In the end, the wrapped object raises questions about the hidden reality and the significance of the thing's origin.

In previous thematic exhibitions like "Sidescape," "Memoriscape," "Ordinary Monument," and "La Vie en Rose," Hong has consistently focused on one thing. It is "the subversion of belief" and the discovery of new values between the part and the whole, the expansion of the gaze from the center to the periphery." This is the level of influence Hong's art world has reached. That is why we seek out the worth and significance of his attention and pay attention to the words of truth he deliv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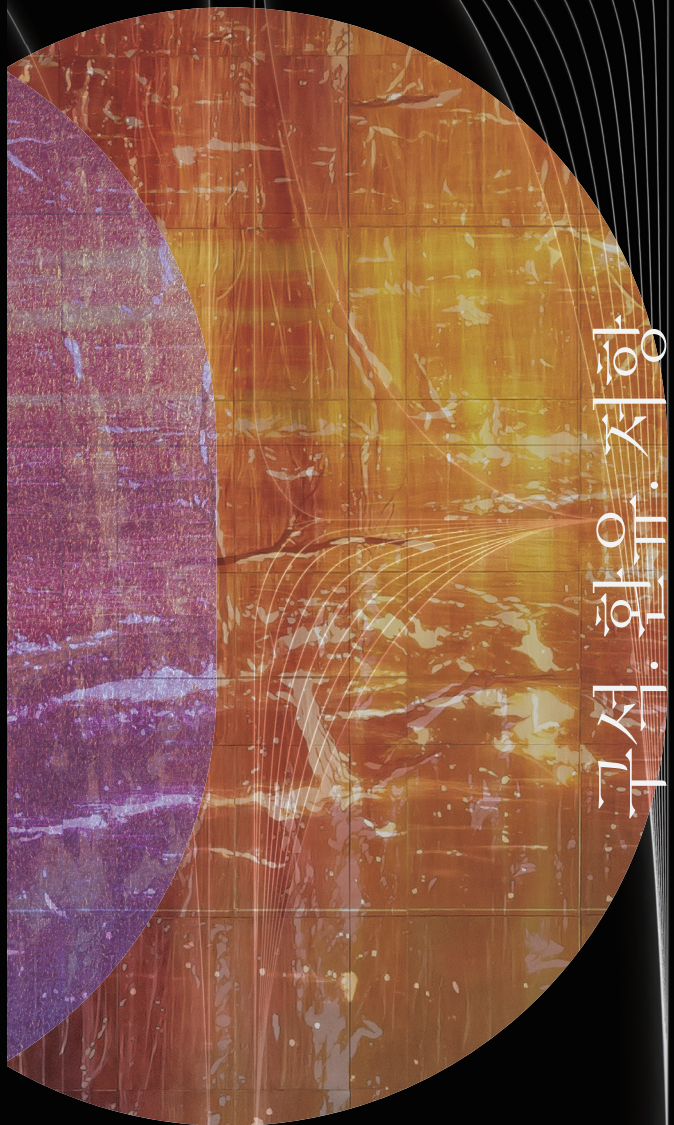
홍순명은 회화에서부터 입체, 설치, 판화, 미디어아트 등을 넘나들며 독창적인 실험 작업을 펼쳐온 작가이다. 지난 20년 동안 '부분과 전체'의 명제아래 동시대의 사건과 역사,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사이드스케이프(Sidescape)'라는 독창적 미학으로 심화하고 확장해 왔다. '부분과 전체'는 '사이드스케이프'처럼 중심이 아닌 주변의 관점으로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전복시켜 보편적 미의 기준과 범위, 경계를 흔드는 홍순명 예술 미학의 핵심 개념이다.

'지금 보고 있는 것, 그 진실의 경계는 어디인지', 홍순명은 국내외의 사회 정치적 사건의 현장을 담은 사진이나 현장 사물을 활용한 실험적 작업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여전히 반복될 수 있는 진실의 불확실성에 관해 끝없이 질문한다. 그리고 그 해답을 얻고자 지배와 피지배, 겉과 속, 내부와 외부, 미와 추, 진실과 거짓 등 고정되고 고착된 대립적 관계를 해체하고 주변의 경치와 관점으로 끈질기게 파고든다.

회화의 경우 추상적이면서 독립적인 이미지(부분)의 캔버스를 수십, 수백 개 조합, 배치해 사회적 사건이나 역사적 재난을 암시하는 하나의 거대한 풍경(전체)을 펼쳐내며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뒤엎들어 우리의 인식을 재편집한다. 때로는 거대한 자연재해 혹은 인재(人災)의 현장마저 '어떤 지점'을 미적으로 바라보려는 인간(자신)의 이중성을 밝히고, 동시에 지금 보고 있는 실체적 진위의 재발견을 유도한다.

입체 또한 같은 맥락이다.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 진실의 실체는 결국 인식과 관점의 차이에서 새로운 층위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독창적 '랩(wrap) 포장'으로 위장(僞裝)한 대상을 통해 보여준다. 어떤 사물에 투명한 비닐이 겹쳐질수록 실체는 불투명해지고, 부분과 전체의 경계도 불확실하고 모호해진다. 궁극에 포장된 대상은 오브제의 출처와 관련된 의미와 함께 은폐된 실체가 무엇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사이드스케이프', '메모리스케이프', '사소한 기념비', '장밋빛 인생' 등 여러 주제의 전시에서 홍순명이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뚜렷하다. '부분과 전체, 중심에서 주변으로' 시선의 확장과 믿음의 전복을 통한 새로운 가치발견'이다. 홍순명의 작품세계가 쌓아온 힘이다. 홍순명이 주목하는 시선의 가치와 의미를 좇아가며 그가 말하는 진실에 귀 기울이게 되는 이유이다.



구름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정

HOBAN
호반문화재단

HOBAN
ARTIST AWARDS

23
미술상
IST AWARDS

5/14

관 기획전시실

www.hoban.or.kr www.hobanartist.com

호반문화재단
중견 원로작가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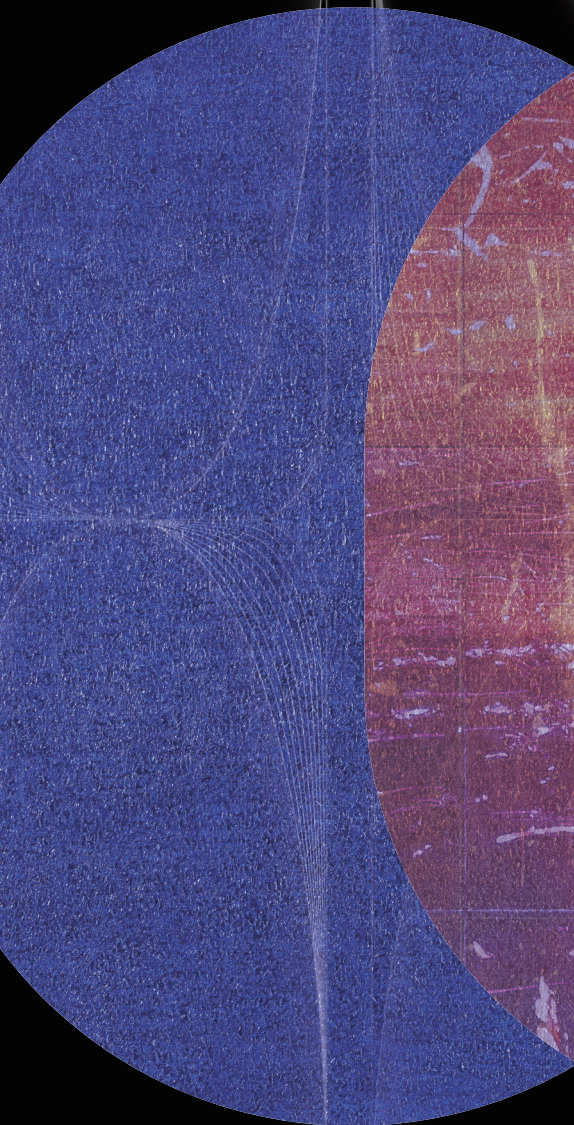
Hoban Found
Senior Art

강운

Kang Un

강운 Kang Un

구름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정



20
호반
HOBAN ART

4/20

제1회 호반미술상
The 1st Hoban Artist Awards

용산 전쟁기념

화가 강운(姜雲) 하면, 광활한 들판 위 불어오는 거센 바람 앞에 자신을 홀로 세워 자연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른다. '구름 작가'로 명성을 얻었을 때부터 최근까지 언제나 쉽 없이 작품의 변화를 스스로 독촉해왔다는 느낌 때문이다. '〈밤으로부터〉-〈순수형태〉-〈순수형태-순환〉-〈공간〉-〈공기와 꿈〉-〈물 위를 걷다〉-〈바람소리 그리고 흔적〉-〈마음산책〉'으로 이어 온 변화는 안주를 거부하는 작가 의지와 태도의 결과이다. '시상(視象)에서 심상(心狀)으로' 구름이 지나간 자리를 마음으로 채우려 한 과정이 읽힌다.

강운은 철저한 자기 들여다보기를 통해 내면세계를 탐구하며 온전한 자신의 길을 정리하려 애써왔다. 그 과정에서 치우치지 못한 채 묻어두었던 상처가 돌아나는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더는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내세워 부딪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깊은 상처는 마음의 상흔으로 남기 마련이다. 마음에 박힌 상흔을 캔버스 위에 글로 적고, 그 위를 다양한 색으로 덮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자기 치유의 과정이자 구도(求道)이다.

미술계의 편견이나 시장논리, 작가위상이나 현실 안위로부터 자신을 떨어뜨려 오직 자유롭고, 끝없는 자기 탐구와 변화에 몰입하는 강운의 스타일은 근작의 <마음산책>시리즈를 통해 더욱 강운다워졌다. '시각적 축각'으로 전해지는 요철의 질감은 작가의 마음 깊숙이 커져이 쌓여있던 수많은 감정들이다.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술한 감정의 알맹이들이 화면 가득 영기고 웅웅거릿듯 보는 이의 마음을 붙든다. 더불어 단색조의 거친 표면, 그 표면의 균열 사이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바탕색(본질, 근원, 마음)은 고독하고, 슬프다. 그러다가 보는 각도와 시선에 따라 이내 메마름을 거둬내고, 촉촉하게 빛난다. 순간 아늑하고 숭고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오롯이 자연을 탐색하던 시상이 자기 성찰을 거치며 심상에서 발산되는 색의 결정체로 응집된 결과이다. <마음산책>의 힘이다. 강운다움으로 올곧게 자기 조형언어(색, 기법, 크기, 구성방식 등)를 고집해나가는 그의 예술세계는 지역성을 떠나 한국현대미술의 한 장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미술로 거듭나고 있다.

I imagine myself being alone in a big field confronting nature with a strong wind blowing over it whenever I think about the artist Kang Un. It is because he has felt the need to alter his work consistently since first becoming well-known as a "cloud painter" up until the present. Through the works "From the Night", "Pure Form", "Pure Form: Circulation", "Emptiness beyond Emptiness", "Air and Dream," "Stroke on the Water," "The Sound of Wind and Traces" and "A Walk through the Mind," the artist has undergone a change as a result of his determination and attitude to not settle for anything less than perfection. One can interpret the process of attempting to mentally capture the space left behind by a cloud.

Kang Un has been trying to organize his own path by exploring the inner world through thorough self-reflection. Along the way, he has experienced pain from unhealed wounds resurfacing, but he no longer hides them and boldly confronts them without hesitation. Deep wounds are inevitably left as scars on the heart. The act of repeatedly writing these scars on the canvas and covering them with various colors is both a process of self-healing and a search for spiritual enlightenment.

Through his most recent series, "A Walk through the Mind," Kang Un's style, which involves immersing himself in endless self-exploration and change while releasing himself from the constraints of the art world, market logic, his status as an artist, and the consolation of reality, has become more recognizable as his own. The rough texture conveyed through "visual tactile sense" is the numerous emotions accumulated deep in the artist's heart. The person who enjoys his artworks's heart is captured by a number of emotional nuggets that are captured on the screen yet cannot be articulated in words. As well as being monotonous and rough, the ground color (essence, source, mind) that emerges from the surface's fissures is also lonely and depressing. Then, depending on the angle of observation and line of sight, it immediately eliminates the dryness and glows moistly. At this time, the viewer experiences beauty and sublimeness. It is the result of the color crystals coming from the images condensing through self-reflection of the ideology that was solely focused on nature exploration. This is "Walk through the Minds" strength. Without regard to location, Kang Un's artistic universe, which insists on his own formative language (color, technique, size, composition method, etc.), is reviving itself as a type of Korean contemporary art.

1966 강진 출생
1990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주요 개인전

- 2023 파랑 GS칼텍스 예술마루, 장도전시실, 여수
2022 운운하다 전남도립미술관, 광양
2020 마음산책 문화공원 김녕과, 광주
2019 바람소리 그리고 흔적 아트스페이스 3, 서울
상처, 치유 신세계 갤러리, 부산
마음산책, 하늘 신세계갤러리 본점 본관 아트월, 서울
2017 Sky, Touch the Air 프랑수아 리비넥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16 Play: Pray 사비나미술관, 서울
2012 물, 공기 그리고 꿈 포스코 미술관, 서울/논밭예술학교, 헤이리, 파주
2005 순수형태-소만(小滿)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본관, 광주
1998 내일의 작가전 성곡미술관, 서울

주요 기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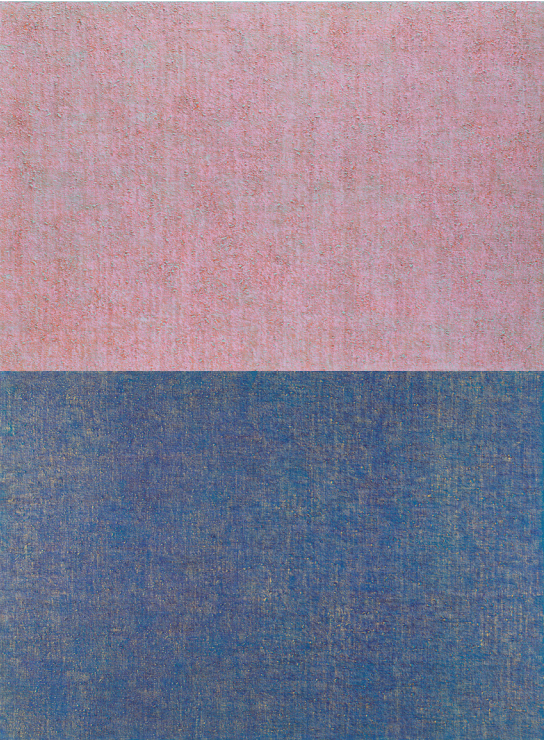
- 2022 보이지 않는, 말들의 풍경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어떤 삶, 어떤 순간 금호미술관, 서울
2021 5.18 40주년 특별전-볼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것 사이 제13회 광주 비엔날레, 구 국군광주병원, 광주
2020 ONE INSPIRATION 와지옌키 왕궁박물관, 바르샤바, 폴란드
2019 DMZ 문화역 서울 284, 서울
2018 ONE INSPIRATION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시로타화랑, 도쿄, 일본
재철비경 포스코 미술관, 서울
2017 Time + Time, Korea Contemporary Art Now Da xiang art space, 타이중, 대만
Ailleurs est ici 애플 데 피, 브레타뉴, 프랑스
2016 2016 중.한 현대미술 20인전 UCITY ART MUSEUM OF GAFA, 광저우, 중국
2015 남도미술 200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14 Heritage, Legacy and Light 유네스코 본부, 파리, 프랑스
코리아안 뷰티-두개의 자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2013 All About Korea White Box 뮌헨/솔츠 갤러리, 베를린, 독일
바람, 바람, 바람: 미술, 바람을 품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2012 라운드 테이블, 제9회 광주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본전시장, 광주
2011 쉽 경기도미술관, 안산
2009 회화의 확장, 제4회 프라하 비엔날레 칼린홀, 프라하, 체코
2005 The Elegance of Silence: Contemporary Art From East Asia 모리미술관, 도쿄, 일본
2003 진경-그 새로운 제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0 人 + 間전, 제3회 광주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본전시장, 광주
보이지 않는 경계-변모하는 아시아미술 나가타 시립 센터갤러리/우츠노미야미술관, 나가타현/토치기현, 일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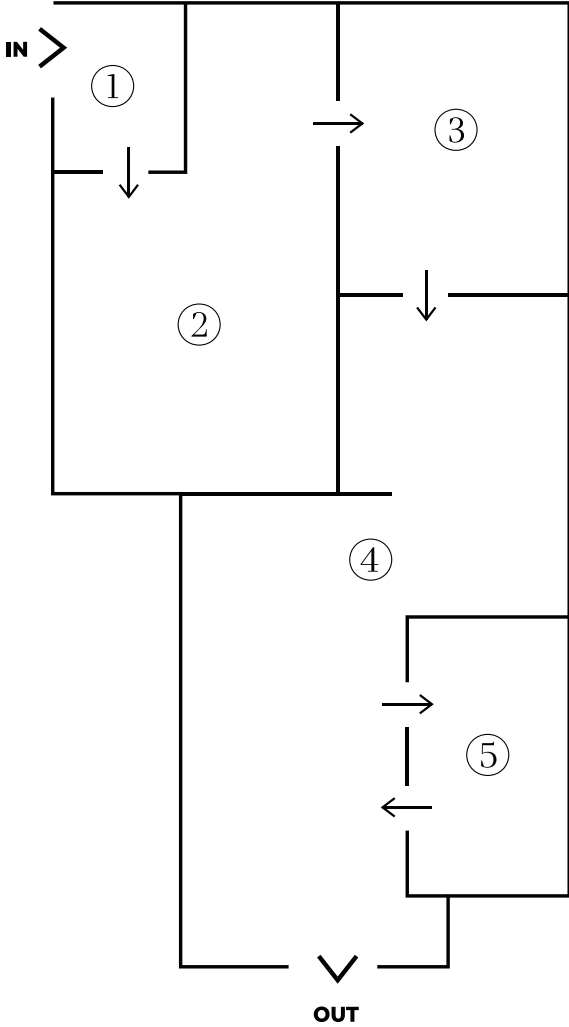
- 2023 제1회 호반미술상, 호반문화재단, 서울
1999 광주예술문화 신인상, 광주예총, 광주



마음산책-운운하다
oil on canvas, 227.3×181.8cm, 2022



마음산책-카이로스의 시간
oil on canvas, 181.8×227.3cm, 2021(each)



① INTRO

② 순수형태, 공기와 꿈

③ 물 위를 굶다

④ 마음산책

⑤ 구름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정

강운

호반미술상

HOBAN ARTIST AWARDS

호반미술상은 재단법인 호반문화재단(이사장 우현희)에서 국내 중견·원로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호반문화재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작가 선정을 위해 시각예술 분야의 중진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분리하여 철저한 개별 심사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미술 분야의 추천과 공정한 심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국 미술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두 명의 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강운’은 하늘과 구름이라는 자연의 순수 형태와 내면에 대한 탐구를 이어오며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의 태도와 깊은 상처의 치유 과정으로 변화된 최근 작업은 ‘시각적 촉각’의 표현이 두드러진 작가의 내면이 응집된 결과입니다. ‘홍순명’은 오랜 기간 ‘부분과 전체’라는 명제로 회화, 설치, 조각,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로 그 시대의 사건과 역사 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중심에서 비껴 선 구석에서, 전체가 아닌 부분에서 시작하는 작업 방식이 작가가 진실과 실체에 다가서는 예술에 대한 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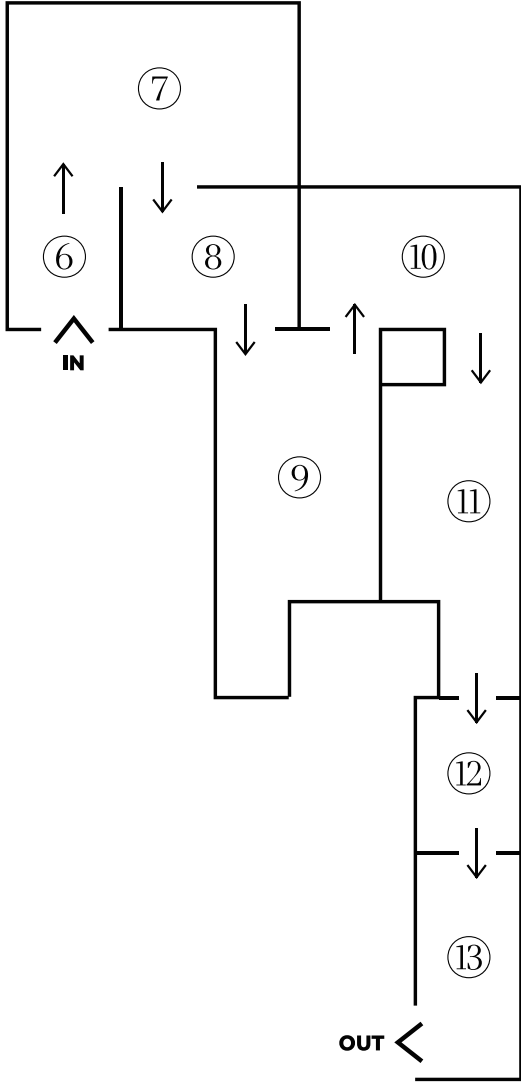
호반문화재단은 단순한 시상이 아닌, 두 작가의 회고전을 기획함으로써 이들의 작품세계를 깊이 조명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국내의 비평가 매칭과 출판 및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그간의 작업을 돌아보고 또 세계화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장논리나 주류 미술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랜 기간 묵묵히 자신의 길을 밟아 온 두 작가의 앞으로의 길을 응원합니다. 호반문화재단이 든든한 지원자이자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리에서 보기 힘든 두 작가의 초기 작업에서부터 최근 신작에 이르기까지 예술과 사회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함께 느껴 보시기를 바랍니다.

Hoban Artist Awards is established in 2022 by Hoban Cultural Foundation (Chairman Woo Hyun-hee) to support senior artists in Korea. The foundation operates a rigorous judging system by the recommendation committees and judging committees composed of professionals in the art field to ensure fairness in judge. Based on recommendations from various fields of art and a fair judging system, two notable artists have been selected.

Kang Un has been pursuing continuous change and development through the exploration of the pure forms of nature such as the sky and clouds and the inner self. His recent works, which are the result of the artist's attitude of self-reflection and the healing process of deep wounds, have the expression of "visual touch" prominently displayed, reflecting the artist's inner world. Hong Soun has been exploring the events and history of his time through various genres such as painting, installation, sculpture, and media, based on the proposition of "the part and the whole" for a long time. The artist's approach to art that moves away from the center and starts from a part rather than the whole reflects his attitude towards the truth and reality.

Hoban Cultural Foundation plans to hold retrospectives for both artists, not simply as awards, but to deeply illuminate their artistic worlds. Additionally, through various promotions such as matching with domestic and foreign critics, publications, and more, the foundation aims to provide a platform for the artists to reflect on their past works and further globalize their art. The foundation will support the artists who have quietly walked their own paths without being swept away by market logic or mainstream art trends and will be a reliable supporter and partner for them. We hope that you can feel the artists' intense contemplation about art and society from their early works, which are difficult to see in one place, to their recent works.



⑥ INTRO

⑦ 초기 작업

⑧ SIDESCAPE A.C.D.R & DIAMOND FOREVER

⑨ MEMORISCAPE & SIDESCAPE

⑩ SIDE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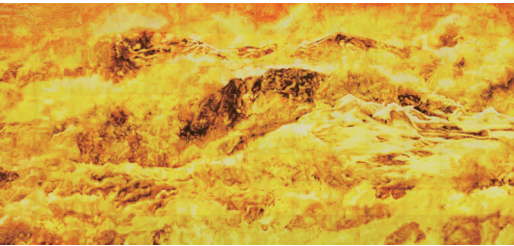
⑪ SIDESCAPE 전경, 재난

⑫ INTERVIEW

⑬ SIDESCAPE 가족



흔한 믿음, 익숙한 오해 - 2021
oil on canvas, 259×182cm, 2020



바다-해풍
oil on canvas, 300×840cm, 2021



붉은 남쪽 바다
oil on canvas, 300×424cm, 2018

1959 서울 출생
1983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
1989 ENSBA à Paris

주요 개인전

- 2022 비스듬히 떨어지는 풍경-재난, 가족 사비나 미술관, 서울
2020 흔한 믿음, 익숙한 오해 초현화랑, 부산
2019 Sidescape-Objection 마비니 갤러리, 마닐라, 필리핀
2018 사소한 기념비 마비니 갤러리, 마닐라, 필리핀
2017 장밋빛 인생 스페이스 월랑엔달링, 서울
이인성미술상 수상 기념 장밋빛 인생 대구미술관, 대구
2016 마비니 2016년 2월 마비니 갤러리, 마닐라
제1회 전혁림미술상 수상작가 초대전 전혁림미술관, 통영
세월의 파편 논베를린, 베를린, 독일
Above Us Only Sky 짐미안 크라토츠빌 갤러리, 그라츠, 오스트리아
2014 스펙터클의 여백 비에시스 아트 뮤지엄, 파주
2012 SIDESCAPE 사비나 미술관, 서울
2010 Sidescape 스페이스 캔, 서울
2009 Sidescape 빙지 스페이스, 서울
2007 Sidescape 새로 갤러리, 서울
2004 갤러리 빙지, 서울
1999 갤러리 현대, 서울

주요 기획전

- 2022 나너의 기억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예술평화:0시의 현재 울산 시립미술관, 울산
Deeper East in Austin - Layers of Inspiration 중앙도서관, 오스틴, 미국
A Land of Hats 마닐라 메트로폴리탄 뮤지움, 마닐라, 필리핀
누구의 이야기인가? 부산 현대 미술관, 부산
2020 이인성 미술상 기념전 대구미술관, 대구
2018 두 번째 풍경 북서울 미술관, 서울
보이스리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균열 II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4 네오산수 대구미술관, 대구
세종대왕, 한글문화시대를 열다 국립 한글 박물관, 서울
2008 산타페 국제 비엔날레, 산타페, 미국
부산 비엔날레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1997 잇시 비엔날레 잇시 시립미술관, 잇시 레 플로노, 프랑스
1983 부산 청년 비엔날레 부산 시민회관, 부산
1982 부산미술대전 판화부문 금상수상 부산 시민회관, 부산
서울 다큐멘타전 미술회관, 서울
1981 양대광당전 특수공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

수상

- 2023 호반미술상 수상, 호반문화재단
2016 이인성 미술상 수상
2015 전혁림 미술상 수상